



동단비 옆 동바람

이정아 글 | 김성라 그림

문학동네 | 초등 3학년 이상

활동! 힘이 되어 주는 별명 짓기 -「동단비 옆 동바람」-

어찌자고 엄마 아빠는 형 이름을 바람으로 내 이름은 단비로 지은 걸까! 게다가 성이 동이니 형은 동바람, 난 동담배가 되어 버렸다. 지난번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아이들은 우리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‘똥’으로 바꿔 불렀다. 아마 세상엔 그런 법이 있나 보다. ‘동’은 다 ‘똥’으로 불러야 한다는.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핵 돌아섰다.

“야, 김찬경, 너 그만해. 우리 형 놀리지 말라고.”

몇몇 친구들은 단비와 바람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, 이름으로 놀리기도 한답니다.

이야기를 죽 읽고, 단비와 바람이가 마음에 들어 할 새 별명을 지어 주세요.

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써 보아요.





소식을 전하는 편지 쓰기

-「너 거기 있나?」-

무진이네 마을에 생태원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은 뽕뽕이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.

공사로 인해 동물들이 다니던 길은 사라지고 산 주위엔 철망이 둘러쳐졌어요.

그래서 무진이네 할머니와 주호네 할머니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.

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지요. 어느 날 무진이네 할머니는 주호네 할머니를 만나러 가다가

길을 잃고 맙니다. 다행히 무진이네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“옥화야, 옥화야” 친구 이름을 부를 때

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. 만약 무진이네 할머니가 그날의 일을 편지로 쓴다면

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?



옥화에게

—부월이가



활동3 책임진다는 것은 -「고양이가 다녀간 자리」

승준이는 시장의 동물 파는 아저씨에게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요.

그러나 엄마 아빠는 고양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.

어쩔 수 없이 승준이는 창고에 고양이의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

고양이를 데려가 줄 아이들을 찾아요.

아니면 시장에 다시 돌려보내야 하지요.

❶ 고양이를 예뻐하는 승준이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. “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네가 끝까지 이 고양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해.” 알쏭달쏭한 승준이 아빠의 말. 끝까지 고양이를 책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❷ 책 103쪽부터 105쪽을 펼쳐 보세요.

고양이 미야는 창고에서 나와 햇볕을 쬐
니다. 여러분이 미야라면 지금 무슨 생
각을 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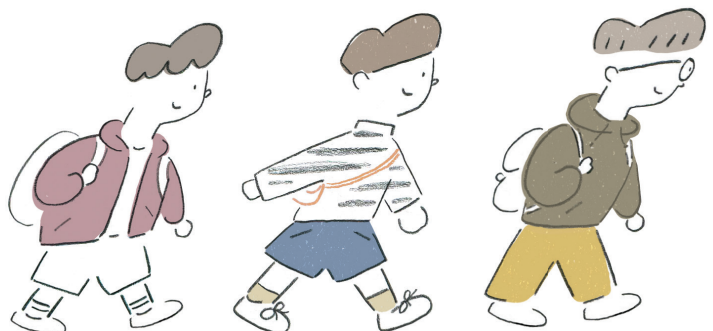
활동4 오늘 내가 걸은 길은

이야기 세 편을 다 읽어 보았나요?

다음은 이정아 작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.

“단비가 내리는 길, 바람이 가는 길, 아기 고양이 소리가 퍼지는 길, 청설모가 소나무 위로 오르는 길……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었나요?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았나요? 길 위에서 만난 우리들,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.”

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었나요?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았는지 떠올려 적어 보아요.





정연우의 칼을 찾아 주세요

유준재 글 | 이주희 그림
문학동네 | 초등 1학년 이상

2020 초등 북스타트(책날개) 선정도서

2020 아침독서 추천도서

한우리 권장도서

활동1 나의 소중한 보물 찾기

이름: _____ 나이: _____

① 내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?

② 언제 갖게 되었나요? 또는 어떻게 함께하기 시작했나요?

③ 지금 어디에 있나요?

④ 왜 나에게 소중한가요?

